

화성시문화재단 지역 예술 창작 지원작 공연

(재)화성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2009년 문화예술창작육성활성화 사업’의 선정작이 유엔아이센터에서 공연된다.

이달 공연되는 작품은 18일 화성오페라단의 ‘한국오페라갈라콘서트’와 24일 ‘세란재즈오케스트라’의 연주회다.

한국오페라갈라콘서트는 10여년간 오페라 공연을 벌여온 화성오페라단이 우리나라 고전작품을 오페라화한 현대명작으로 꾸며진다. ‘춘향전’과 김동진 작곡의 ‘심청전’, 화성시 지원으로 창작된 김경준 작곡의 ‘정조대왕의 꿈’ 등을 각 작품의 분장과 의상, 소품을 모두 갖춘 가운데 중요한 아리아와 중창 등을 선보인다.

세란재즈오케스트라는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피아노 등 조화를 이룬 하모니를 바탕으로 흥겨운 고음역의 브라스 선율과 재즈 솔로의 대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뉴욕대학교에서 재즈퍼포먼스 석사를 전공한 세란재즈오케스트라의 대표 오세란 씨의 자작곡인 ‘재즈관현악곡’도 연주된다.

한편, 시문화재단은 지난 3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7개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선정했으며 지난 7월 서순경무용단의 ‘2009 서순경의 춤 - 전통춤의 향연’과 8월 화성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클래식 여행’을 공연한 바 있다. 각 공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전석 무료초대다. 문의 031-267-8842. 류설아가

자/rsa119@joongboo.com